

책자형 선거공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산진구갑 후보

부산을바꿀 큰일꾼으로!

2 김영춘

김영춘은 다릅니다

웁은 일에 아낌없이 자기 몸을 던져 헌신해 온 사람
서민의 아들로서 동네 이웃과 동고동락하는 소탈한 사람
부산을 바꿀 정치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사람
사람이 다릅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이력보다
서울에서의 재선 국회의원, 최고위원 경력보다
더 소중한 이름은 **내 고향 부산진구의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몰락하는 부산을 살리고 시민의 대변자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부산에서 세 번째 도전하는 뚝심의 정치인 김영춘입니다
고향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부암동 골목 쌀집 아들의 이름으로 성지초 · 개성중 · 부산동고를 졸업한 동네 후배, 선배의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성지초등학교 47회 졸업식

부산진구가 키운 일꾼

부암동 골목 쌀집 가게 아들
아버지를 도와 자전거로 쌀 배달하던 김영춘은 부산진구에서
성지초등학교, 개성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수석 입학합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영춘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합니다.
직선제 개헌의 기수였던 야당 총재 YS와의 운명적 만남으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거쳐 38세에 16대 국회의원 당선,
42세에 17대 국회의원으로 재선됩니다.



1984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시절
(연세대 회장 송영길과 함께)

부산진구를 키울 일꾼

몰락하는 부산을 살리고 구태한 정치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고
아내, 중학생 외아들과 함께 2011년 부산으로 귀향합니다.
2012년 부산진구갑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3,500여 표차로
아깝게 낙선합니다.

낙선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을 지키면서 고리1호기 폐로, 부산 반값전기료,
대중교통 환승요금 폐지,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 철회 운동 등을 주도하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4년 부산시장에 도전하여 제10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부산의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대승적 결단으로 오거돈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하고 단일화를 이루어냅니다.



김영삼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제16·17대 국회의원



19대 부산진구갑 국회의원 선거



부산시장 후보 단일화

시민당 민생당의 이름으로 부산진구 주민의 대변자로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부산시민당, 부산민생당의 이름으로!

지금 한국의 정치, 부산의 정치 이대로 되겠습니까?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부산 시민을 위해서라면, 부산의 민생을 위해서라면
여당도 야당도 바로 잡겠습니다.

동네 토박이라고 반겨주시고 이번에는 꼭 당선되라며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부산진구 주민들의 대변자로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부르시면 민생 현장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2016년 부산에서 세 번째 도전, 다시 출발점에 서있습니다

여전히 벽은 공고합니다.
벌써 부산 국회의원 수 18 : 0 싹쓸이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넘기 어려운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 김영춘은 부산에서 계속 도전합니다.
김영춘과 함께라면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일당독점 속에 뒷걸음질 치는 부산을 다시 뛰는 부산으로 바꾸겠습니다.
99% 서민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답답한 현실을 바꾸겠습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정치
부산진구에서 김영춘이 하겠습니다.



고리1호기 폐로 운동



부산 발값전기로 운동



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제도 개선방안!



대중교통 환승요금 폐지 운동



부산부활 프로젝트 활동

부산공약 실행촉구 활동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 철회 운동

대한민국, 부산진구,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MB 정부 정책통 현 정부 경제통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거리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60세 당감시장 생선가게 박이훈 씨 (당감동)

트럭생선 장사 11년 만에 내 가게를 얻었다.
어느날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공사가 시작됐다.
데모도 하고 별짓 다 해봤지만 대형마트는 들어섰다.
썰물 빠지듯 손님은 줄고 열음값, 기름값, 전기요금은 갈수록 올랐다.
새벽에 물건 받아 7시에 문 열고 밤 9시에 닫는다.
이거 저거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못 견디고 문 닫은 이웃 가게가 네 곳.
나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다녀갔지만
달라진거 별로 없다. 우리한테는 장사 잘되게 해주는 것이 최고다.

— 전통시장 매출 대형마트의 절반 이하

어제는 주방이모, 오늘은 아줌마 42세 주부 김태영 씨 (양정1동)

적은 돈이지만 남편 월급 아끼고 모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3,
중2 두 아이 학비에 부모님 부양하다 보면 가게부는 매달 적자다. 생활비 좀 보태려고 일을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베이비시터, 식당일이 전부다. 아기를 보러 가면 아줌마가
되고 식당일을 하면 이모가 된다. 일해야 하는 여성에게 좀 더 좋은 일자리는 없는 것이지..

— 여성일자리의 62%가 비정규직

편의점 사장 4년, 남은 건 눈물

51세 농심슈퍼 안도준 씨 (초읍동)

하루 4시간 자고 4년간 쉼없이 편의점을 운영했다.
임대료와 가맹본부에 380만원 주고 알바 인건비 주고 나면 늘 남는게 없었다.
결국 4년 만에 정리하고 동네 작은 슈퍼 하나 차렸지만 간혹 담배 사러 오는
손님 밖에 없다. 담배값 세금폭탄으로 동네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아내는 식당으로, 나는 1년 계약직 하루 4시간 일하는 투잡을 땀다.
형편이 어려워 두 아이 학원 한 번 보내 보내 준 것이 켈 맘 아프다.
열심히 일하지만 앞이 안 보인다. 세상이 좀 달라지면 좋겠다.

— 50대 자영업자 절반이 월 100만원도 못 벌어

이래도 경제 실패가 아닙니까?

참 힘드네요

32세 비정규직 황미애 씨 (부암동)

대학원 석사 32살 비정규직으로 200만원 겨우 벌어요. 도시락 싸다니고
가급적 약속 안잡고 아껴서 엄마하고 35살 백수 오빠 부양합니다.
통장잔고는 늘 간당간당하고 혼수자금은 꿈도 못 꾸니다.
가끔은 누워서 아.. 다시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식구생각에 정신을 차려요.
고학력 비정규직 참 힘드네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기다립니다.
우리사회가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 부산 비정규직 10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병들고 나이드니 사는게 고역

노부부 78세 김동렬 · 74세 홍순자 씨 (구.범전동)

남편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나는 부전시장 가게에서 마늘 까고
파 다듬어 버는 돈으로 산다. 4남매가 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제 앞가림도
못하지만 자녀가 있어 기초수급대상이 안 된다.
먹는거 아꼈다고 무료급식소를 자주 이용한다. 저녁은 라면이나 빵 찌꺼기로
때울 때가 많다. 지금은 괜찮지만 내마져 아플까 걱정이야.
나라에 돈이 없겠지만 우리 같은 늙은이들 좀 도와주면 좋겠다.

—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

지난 10년! 중산층 10% 감소, 빈곤층 증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꿀 큰일꾼으로!

대한민국과의 약속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 회의 표결 불참시 수당 삭감
- 선거 2개월 전까지 정당 공천 미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 선거구획정은 중앙선관위, 국회는 수정권한 없이 통과만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되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3대 양극화 해소 기본법 제정

부자 - 서민
수도권 - 지방
대기업 - 중소기업

- 고소득자 소득세·재벌 법인세·종합부동산세를 감세 전 수준으로 복원
-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11% → 50%로 10년간 연차적 확대
- 중소기업부(部) 신설 (재벌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상생경제 실현)

자영업자의 탄탄한 영업환경 구축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 법제화
-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 30만원 → 50만원으로 인상
- 햇살론 제도 대출조건 완화 및 폐업시 분할상환제 도입

어르신께 생산적 복지를

-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 틀니 제작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인하 및 재제작 보험적용 기간 7년 → 5년으로 단축
- 노인 일자리 예산 두 배로 확대 (최고의 노인복지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여성이 마음편히 일하게

- 출산휴가 확대(90일→120일) 및 육아휴직급여 인상(40%→50%)
- 부산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현재 8% → 20%로 확충 (서울시 목표 30%)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 부산지역 공공기관 부산인재 30%이상 고용할당제 실시
- 부산청년기금(Busan Youth Fund) 조성, 창업 및 구직활동 지원
- 전국 5만개 공공임대주택 청년층에 제공
- 학자금 대출의 조건부 무이자 전환

장애인이 보다 편안한 세상을

-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으로 확대
- 콜택시 지원 예산 2배 증액, 이동권 보장
-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자립지원금 지급·부양의무자 규정 단계적 폐지
- 부산진구 장애인 자활사업장 별도 건립 추진

부산, 부산진구와 더불어

부산을 한국의 싱가포르, 한국의 상하이로!

부산경제자유구역 두 배로 확대 지정

- 남항·북항 연안 원도심 해안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
- 원도심 종합개발 계획 수립
-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된 기업유치 투자 인센티브 제공
- 부산-큐슈-상하이 비즈니스센터 설치, 부산-중·일 경제협력 확대

글로벌 국제도시 부산, 부산특별시 프로젝트!

부산의 행정·재정권한 확대

- 독자적인 부산발전 비전 수립, 수도권 및 해외 일류도시와 경쟁
- 지방세 수입비율을 20% 수준에서 40% 까지 상향조정
- 부산·경남 통합, '부경특별자치도' 행정개편 장기적 추진

부산 탈원전 40년 계획

-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유치
- 부산을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산업의 메카로

생활비 인하, 가계부 숨통 틔우기

- 부산 반값전기료 반드시 실현 (수도권·대기업에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 도입)
- 전국 최고 상하수도 요금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하
- 전국 최저 유료도로의 통행료 인하 및 운영체계 개선
- 전국에서 제일 비싼 쓰레기 봉투값, 서울 수준으로 인하

<2015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서울	425
부산	813
대구	430
인천	594
광주	740
대전	660
울산	600
경기	524
...	
강원	353
충북	301

(2014기준)

(단위: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새누리당의 헛 공약(空約)
가덕도 신공항 반드시 유치!



부산진구를 바꿀 김영춘의 11가지 약속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재개발사업 정비

- 부산시의 재개발사업 공공적 개입의무를 법률에 명시
- 될 곳은 공적지원을 통한 빠른 추진 지원, 안 될 곳은 신속한 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 개선

2 (가칭)초부터널(초음~연지~부전 연결) 개설

- 총연장 900m, 4차로 (예산 330억원 추산)
- 만덕3터널 개통으로 인한 새싹로·성지로의 교통난 해소

3 경부선 부산진역~가야역 구간 철로 철거

- 철로로 단절된 부암1동-당감1·2동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

4 교육특별구 부산진구

- 교육혁신지구 지정으로 초·중·고 혁신학교 10개 유치
- 중학교 의무 무상급식 단계적 추진
- 수학포기자 없는 부산진구, 'Math Park(종합수학체험관)' 조성
- 문해교육 지원을 고교과정까지 확대, 평생교육 내실화
- 초·중·고 아침 급식 제공 (희망자 부담)

5 당감·부암지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 수영장·실내코트·도서관·다목적 문화홀 포함
- 당감·부암동 10만 주민 삶의 질 향상

6 성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 초음·연지·양정·부전1동 10만 주민의 복지 향상
- 성지권 복지사각지대 해소

7 부전시장 일대 상권 활성화

- 서면로터리~부전역 중앙대로 횡단보도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 부전시장 공영주차장 증축 및 이용고객 2시간 무료 추진
- 부전역 광장에 글로벌 다문화 야시장 개장
- 부전역 환승센터를 송상현광장~시민공원 녹지축과 연계 개발

8 부산시민공원 활성화 인프라 구축

- 시민공원 거울연못을 활용해 거울스케이트장 개장
- 흙길 산책로 조성 및 운동시설 보강
- 부산국제영화제 시민공원 야외상영 추진

9 교통 이용 불편 해소

-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
- 부산진구 버스노선과 배차간격 재조정 (대기시간 10분 이내)
- 송상현광장~부전시장~시민공원~어린이대공원 연결 마을전차 개통

10 빗물-생활오수 분리 하수관로 100% 설치

- 부암·당감·양정·초음·연지·부전1동(구,범전동) 전역

11 KTX 기지창 상부, 브릿지데크(광폭다리) 건설

- 부암1동·당감1동~당감2동 연결도로 건설로 단절된 생활권 통합
- 녹지공원 및 보행로 조성

지난 5년, 김영춘이 발로 뛰고, 귀로 들었습니다



- 중앙대로 양정동 동의과학대 방향으로 잠원역 신호개선
- 베조아파트 상가이대 상영지역으로 용도변경
- (구) 양정1동 주민센터 인근 중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 당감 3구역·8구역·10구역(당감1동) 재개발해제구역 주택환경 개선
- 과학영재고 위 산지 당감체육공원 조성
- 당감4동 동원주택 인근 경로당 신설
- 백양터널 국제백양APT 방향 중구(당감4동) 메타세콰이어 나무 방울벽 설치
- 부암1동 동이아파트 2단지 동서고가로 방향 노방도로 개설
- 부암고가로 철거 (지하차도 설치 등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
- 성지공로 비세이마트~상원아파트 구간 도로확장 조기완공 및
- 만덕3터널 공사피해 최소화
- 초음 향신아파트~시립도서관 예교브릿지(세태동로) 설치
- 당감·부암권 신바/가죽 가내공장 특화지원센터 유치

김영춘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대로는 안 된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1% 소수 특권층이 부산을 망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99% 시민들의 현실개선을 위한 싸움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부모님의 노후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투표로 부산을 바꿔 주십시오!

경륜과 패기를 함께 갖춘 54세 김영춘 부산을 바꿀 큰일꾼으로!



▲ 2014년 2월 27일 국회 정론관

김영춘을 응원하는 국회의원 멘토단 출범식에
계파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가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13일 김영춘을 뽑아주시면
부산과 서울에서 모두 당선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3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흔해빠진 새누리당 3선과는 격이 다릅니다.

김영삼, 노무현을 이어 달리는 큰 정치인으로 김영춘을 키워 주십시오.

국군장병 여러분

불철주야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생에 다시 없는 황금의 시절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이 진짜 영웅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학력 |

- 성지초등학교 졸업(47회, 총동창회장)
- 개성중학교 졸업(26회)
- 부산동고등학교 졸업(24회)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4학년 재적중

| 경력 |

- 만 54세, 김해김씨
-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김영삼대통령 청와대 정무비서관
- 제 16 · 17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
- 2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부산진갑 후보
- 2014년 부산시장선거 오거돈 후보와 단일화
-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